

부처님을 꾸미는 무늬들

— 무늬를 찾아보아요! —



부처님이 사는 세계는 아름답게 빛나는 맑은 세계로, '정토'라고 불러요. 예로부터 사람들은 정토를 동경하며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동경의 대상인 정토를 재현하고자 금이나 은 등의 금속 또는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조개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 모양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. 이러한 무늬로 부처님의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반짝반짝 빛나는 정토를 재현하려고 했지요.

부처님을 꾸미는 무늬를 찾아보아요!

① 전시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무늬를 찾아보아요.

무늬를 찾았다면 네모 상자에 체크해 보아요. 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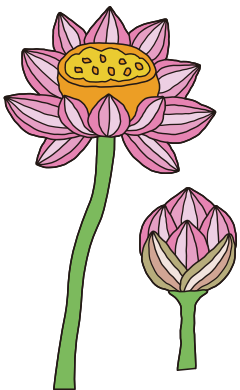
무늬는 아래의 그림과 색깔이 다르거나 다른 무늬와 한데 어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.

추천 전시실: 본관 1층 11실, 본관 2층 1실, 3실

② 찾아낸 무늬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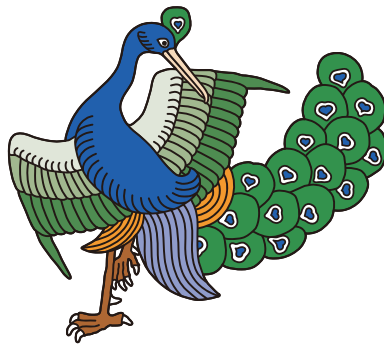
- 무늬는 어떤 작품에 있었나요?
- 그 작품에는 그 외에 어떤 무늬가 있었나요?
- 찾아낸 무늬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든 무늬는 무엇인가요?

○ 연꽃



연꽃은 고결한 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부처님이 올라탄 대좌 중에는 연꽃 모양으로 된 것이 있죠. 또한 '보살'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연꽃 봉오리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.

○ 공작



공작은 아름다운 날개를 부채처럼 펼친 화려한 모습으로 유명해요. 뱀이나 벌레가 지닌 독에도 끄떡없는 공작은 나쁜 일이나 괴로움을 없애주는 힘을 지녔다고 믿어져 왔답니다. 부처님이 올라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해요.

○ 보상화



보상화는 상상 속의 꽃이에요. 큰 꽃잎을 지닌 화려한 꽃으로, 연꽃과 함께 부처님 세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상징해요. 왼쪽 그림에는 '당초'라고 불리는 넝쿨무늬가 어우러져 있어요.

○ 가릉빈가



가릉빈가는 부처님이 사는 정토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상상 속의 새예요.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,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. 손에는 연꽃잎을 담은 바구니 또는 약기를 들고 있어요.